

보도시점 (지 면) 11.6(수) 석간
(인터넷) 11.6(수) 06:00

사우디 주요 협력 파트너와 연이은 양자면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중동 진출을 위한 광폭 행보

- 알 팔레 투자부 장관 면담 계기 중기부-투자부간 FCP* 연장을 통해 비반 2024에 참여하는 우리 12개 스타트업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전폭적 지원 협력 약속
 - *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 주로 사우디 정부가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기 위해 체결하는 양해각서(MOU)와 유사한 형태
- 알 까사비 상무부 장관과 양국간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약속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BIBAN* 참석차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을 계기로 4일(월), 5일(화) 이틀간 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 주요 파트너들과의 연이은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우디·중동지역 진출 협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 '17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중동 지역 최대 스타트업 포럼

먼저 오영주 장관은 사우디 핵심 부처와의 소통을 위한 첫 일정으로 4일(월) 알 팔레(Khalid bin Abdulaziz Al-Falih) 투자부 장관을 만나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부는 사우디 현지 및 해외 투자 유치, 비즈니스 성장 지원, 국가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정부기관이다. 중기부와는 알 팔레 투자부 장관의 컴업2022 참석을 시작으로 양국 금융·투자·비즈니스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투자부는 작년 우리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사우디 진출 거점인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한국 기업의 중동지역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리야드 GBC에 대한 투자부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양국간 중소벤처분야 교류 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투자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양 장관의 만남을 계기로 작년 중기부와 투자부가 체결했던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중동진출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FCP, Framework Cooperation Program)의 협약기간을 연장하였고, 이례적으로 올해 ‘BIBAN 2024’에 참여한 스타트업 12개사에 대해서도 투자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담기며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5일(화)에는 오영주 장관과 BIBAN2024의 주관 기관인 상무부 알 까사비(Majid bin Abdullah Al-Qasabi) 장관과의 회담이 이어졌다. 지난 7월 방한해 직접 오영주 장관을 BIBAN으로 초청하기도 했던 알 까사비 장관은 중기부의 이번 사우디 방문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양 부처간 협력이 더욱 공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했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중기부의 BIBAN 참석부터 시작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사우디 중소벤처위원회와 컴업2024의 사우디 사절단 참여 등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상무부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사우디 중소벤처분야 주요 부처와의 만남을 계기로 보다 더 실질적인 상호 신뢰관계를 발전시켜나가 앞으로 양국 간 중소벤처분야의 교류와 공동 발전이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수민 (044-204-7550)
		담당자	사무관	정미라 (044-204-7553)
				주무관

